

21세기 환경문제와 여성의 힘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여성환경연대 60대 으뜸지기

1. 들어가는 말

1999년 6월 23일 여성환경연대의 창립 당시 신문 기사를 읽은 한 남성으로부터 애정 어린 <항변>을 들은 바 있다. 여성환경인들만의 결속은 <남성역차별>이라는 것이었다. 이 남성은 우리나라의 환경운동을 잘 알고 있는 편에 속하는 사람이다.

여성환경연대에 대한 항변의 요지는 오늘날 국내외적으로 환경보전활동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만의 결속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의 요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여성운동은 있는데 왜 남성운동은 없는가? 또는 여성사는 있는데 왜 남성사는 없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듣고 있다.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의 의식속에는 하나의 전제가 빠져 있다. 지금까지의 인류 또는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되어진 것에 여성은 들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역사는 남성사로 되어 있다. 그 근거를 역사라는 영어 단어 <History>에서 찾아 볼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역사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교육, 종교 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학에서는 이것을 '불가시성'이라고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있는 여성사 또는 여성문제 등의 여성관련 서적들은 한결같이 여성의 불가시성을 전제로 한 남성중심사회에 대한 분석, 해석, 또는 기록이라고 간주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떠한가? 사회구성원의 반 이상은 여성이다. 모든 남녀는 여성에게서 태어난다. 남녀가 가정을 인생의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얼마전 어떤 국제회의에서 오늘의 시장원리에 함몰되어서 인간차별에 무신경해진 자국의 민주주의의 잘못되어가는 것을 반성하기 위해 연출된 이벤트에서 인권운동가이면서 흑인노예해방가인 여성선각자 썬저너 트루스(Sojourner Truth 1797-1883)의 입을 통해 코믹하지만 메세지가 담긴 재담을 들은 바 있다. 그것은 오랜 역사를 통해 인류에게서 가장 신봉받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남성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말이었다.

일본의 여성운동 이론가인 우에노 지즈코 교수가 1986년 펴낸 <여성이 세계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책에서 "남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여성도 할 수 있다". "남자가 구하지 못하는 세상은 여성도 구할 수 없다" "여성은 남성이상도 이하도 아닌 동일한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면서 우에노는 <차별없는 구별>설을 지지하는 여성원리파로 간주되는 생태적인 페미니즘의 신화를 거부한다. 그 이유는 근대사회가 비록 합리적, 과학적, 분석적, 경쟁적, 그리고 단편적인 남성원리 위주로 운영되어온 결과 위기상황을 맞게된 것이라고 해서 직관

적, 신비적, 통합적, 전체적인 여성 원리로 타개해야 한다고 설득하는 경우 여성만이 여성 원리의 담지자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여성원리가 세계를 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문화의 영향으로 여성집단이 여성원리를 보다 강하게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에노는 여성이 여성원리에 사로잡힐 필요도 세계를 구하는 책임도 자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개인으로서의 여성은 남성과 똑같다는 것이다. 그 말은 남성들도 여성원리의 담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잘못된 근대사회를 바로잡는 일은 여성원리를 남성도 발휘하게 해서 현재 남성원리에 치우쳐 있는 사회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페미니스트 인류학자인 미셸 로잘도는 이 점을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고 있다. “평등주의적인 사회는 남성이 가정생활 영역에 높은 가치를 두고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여성의 지위향상은 여성은 공적사회에 진출하고 남성은 사적영역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제압하는 것이 아닌 형평성과 균형잡힌 조화가 중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남성역차별이라는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성환경연대인가? 첫째로 환경운동권 내의 가부장제 문화로 인한 폐해해소와 환경운동사에서의 여성참여의 불가시성을 극복하기 위해, 둘째 여성환경운동의 정체성 확립 및 주체적 참여 확대 위해, 셋째 국내외적인 연대 활동을 강화해나가기 위해, 넷째 여성환경운동의 세력화를 통해 여성의 삶의 조건을 스스로 만드는 것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섯째 독자적인 지도력 개발, 전문성 및 발언권 확보 등을 위해 여성환경운동 활동가, 전문가, 정책결정참여자, 실천가들의 연대는 필요하다.

여성의 잠재력은 아직까지 써보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자산으로서 여성환경연대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사회를 생명공동체로 지구환경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I. 21세기의 환경문제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라고 한다. 19세기의 열강들의 패권주의로 인한 공간지배의 정당성이 붕괴되면서 20세기는 국가마다 부를 추구한 경제의 세기였다. 경제발전은 일정부분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한 것은 인정하나 그 정도가 지나침에 따라 인류의 장기적인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기에 이르러 21세기는 환경의 세기가 될 수 밖에 없다.

현재 우리 눈앞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와 손자녀들이 그들이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관장해야 하는 시대에 미리 가보면 자원은 바닥이 나고, 산림과 농경지는 황폐화되고 하늘과 바다는 오염될때로 되고 국내외의 빈부격차는 극심해서 생존을 위해 사람들이 사람을 죽여도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는 <살인의 문화>가 도사린 세상일 것이라고 누가 예측했다. 새로운 세기는 동서의 갈등대신 환경문제라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현세대

인은 21세기의 환경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인류의 미래가 결정되는 기로에 서 있다.

II-1. 환경문제란

환경이란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생명체의 삶과 발달에 외부적인 영향을 주는 조건들의 총체라고 되어 있다. 생명체에 따라서 그 환경의 개념은 달라진다. 그렇게 다양한 환경이 서로 연계되어 하나의 지구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 인간의 환경이란 인간을 중심으로 한 모든 주변 여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생태환경과 문화환경 등을 들 수 있다.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인간이 사는데 필요로 하는 식품, 물, 공기를 비롯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간활동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폐기물을 정화해 주는 것이다.

이 두가지 기능은 인간활동과 지구생태계의 순환기능의 일부이다. 환경문제란 이러한 순환기능을 교란시키고 파괴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즉 지나친 인간활동으로 지구생태계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정화능력을 마비시킨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 환경문제는 <산업공해문제>와 <지구환경문제>로 구분하고 있다. 산업공해문제는 국지적인 문제 또는 특정활동에 의한 일과성인 현상으로 비교적 그 시정이 용이하다. 그에 비해 지구환경문제는 국경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영향을 미치며 인류의 존속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어려운 문제이다.

산업공해의 경우 가해자=공해배출기업, 피해자=인근주민 등의 도식이 성립된다. 그러나 지구환경의 경우 모든 생활인이 피해자, 가해자, 관리자라는데서 우리의 삶과 행동양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오늘의 지구환경문제는 개개인의 생활양식과 산업계의 생산양식 그리고 지역사회의 존재양식에 의거한 지역환경문제의 누적으로 대두된 문제이다.

II-2 환경위기의 원인

오늘의 생태계 파괴현상은 지난 200년의 산업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모품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라는 현대인들의 소비 미덕의 생활양식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인구 폭증과 도시화 그리고 **빈부의 격차문제** 등이 지구환경파괴를 증폭시키고 있다. 그보다 더 근본원인은 우리들의 자연환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다.

- ① 인간들이 지구와 생물권이 인간만을 위해 존재하는양 인간중심으로만 생각하고 행동

24억 2000만 인구는
세계인구 41%의 1/2
초인,
20%의 인구는 14억 인
20%의 인구는
1960년대 이후 30%
24억

한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와 물체가 공존해야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현상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동양에서보다 서구에서 더하다.

② 만물의 삶의 터전이며 미래 세대의 거처이기도 한 생태계를 마치 현세대만의 것인양 남용하고 있다. 인간은 지구를 선조에게서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서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다. 현세대의 자연자원의 남용은 미래세대의 몫을 앞당겨 쓰는 것이며 후세에게 빈곤을 안겨 주는 결과를 가져 온다.

③ 인간이 소모하고 있는 자연자원이 무한대로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60년대말 발표된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보고서는 자원고갈을 경고하고 있다. 오늘과 같이 물질우선, 경제우선이 지속되는 한 21세기 중반에 이르면 수자원, 에너지, 식량고갈과 환경오염 등에 의해 지구가 붕괴된다고 경고하며 자원은 유한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있다.

④ 현세대인이 뒤늦게 깨달은 것은 지구의 자정능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자원고갈의 위협보다 더 급한 폐수, 배기가스, 폐기물 처리문제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현대사회가 배출하고 있는 폐기물의 질과 양이 지구의 자정능력의 한계를 넘고 있다.

⑤ 오늘의 지구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아직 여유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서이다. 지구환경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잘 알려진 퀴즈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연못과 연잎에 관한 것이다. 연못의 잎이 차지하는 면적은 매일 배가 된다. 연잎이 못의 전면을 덮어 버리면 연못의 생물은 질식사한다. 이 잎은 29일째가 되면 못의 면의 반을 차지한다. 여기에서의 퀴즈는 전면을 덮는데 몇일이 더 걸릴까요이다. 또 하나는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과 끓는 물에 넣었을 때의 반응에 대한 것이다. 서서히 더워진 물에서는 개구리가 죽지만 뜨거운 물에서는 뛰어 나오기 때문에 개구리가 산다는 뻔한 답이다. 인류는 지금 29일째의 세계에 살고 있어서 물이 미지근하다고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나만이면 된다는 이기심으로 편리함과 풍요함을 추구한 나머지 인류는 엄청난 대가를 치루게 되었다.

II-3. 해결책

지구환경문제는 단시일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인류가 직면한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처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 더 기본적인 것은 인간활동의 양식을 바꾸는 것이다. 생산과 소비양식에 획기적인 변혁이 일어나야 한다.

변혁은 인간활동의 원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구환경문제가 거창하고 복잡하지만 그 해결은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그리고 개인은 개인대로 환경친화적인 정책, 생산, 소비를 각기 실천하는데서 비롯된다. 인간활동의 원점에서 환경을 지킨다는 것은 발생원에서 문제를 예방하는 것으로서 자연을 사랑하며 자원을 아끼고, 폐기물을 감축하고,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재사용 및 재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실천을 일상화하는 것이다.

1992년도 리우에서 개최된 지구정상회의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21세기 행동강령인 <

의제21-Agenda 21>이 만들어졌다. 이 협약의 제4장에서는 지구환경 악화의 주원인을 지속 불가능한 형태의 생산과 소비양식으로 간주하고 이들의 변혁을 촉구하고 있다.

1997년도 뉴욕에서 <리우+5>로 불리우는 유엔환경특별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총회는 리우에서 합의한 의제21과 다양한 국제환경협약의 그후 5년간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5년간의 새로운 다짐을 위한 국가 정상들의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하는 회의였다. (우리나라 대통령, 외무, 환경장관 참가)

이 회의에서 점검한 실천성과중에서 가장 부진했던 것으로 지적된 것이 제4장의 과제였다. 여기에서도 리우에서처럼 자원다소비 국가들이 비판의 표적이었던 것은 당연하다. (한국 '92년부터 과소비 20%에 포함, GNP 7,500불부터)

뒤늦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현재 절대다수의 지방자치체가 <지방의제 21>을 수립하였는가 하면 중앙정부에서도 오늘의 국제사회의 화두인 <지속가능발전성>을 정책수립과정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은 다행이다. 지난해 9월에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의 출범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정부의 환경행정의 방향이 종래의 사후처리, 공급관리 원칙에서 사전예방, 수요관리 원칙으로 산업계에서는 환경친화적인 청정기업으로, 소비자는 녹색소비생활로 전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위기와 함께 IMF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도 기여한다고 보아 중시한다.

II-4. 환경인의 생활

환경인이란 환경에 부담을 덜주는 행동양식으로 사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한 행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는 환경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삶의 지혜로서 개발하고 전파되어야 한다. 개개인의 환경인의 변화된 행동양식이 산업계의 친환경적 생산과 정부의 녹색정책을 견인해 낼 수 있으며 그 기본적인 행동수칙은 다음과 같다.

① 자신의 일상생활의 환경점검(Eco Check)을 한다. 자기의 환경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이다. 에너지절약, 물질절약, 쓰레기 감량, 물건 재사용, 자원재활용 등 소비억제를 하는 것이다. (UNEP 에코가족운동)

② 물건구입은 제품에 사용된 자재 및 원료의 채취과정, 제조과정, 유통과정, 사용후 폐기과정을 따져보고 산다. 그리고 꼭 필요한가, 오래 사용할 수 있는가,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폐기시에 재자원화가 가능한가, 오염원이 아닌가 등을 고려한다. (녹색구매지침서 필요)

③ 쓰지 않는 물건은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한다. 생산된 물품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기능의 수명이 다하기까지 사용하도록 한다. 재활용센터 또는 녹색가게 등이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의 환경백화점)

④ 자주 쓰지 않는 기구 등은 임대해서 사용하거나 이웃간에 공유한다. 값비싼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생활공간을 물건보관용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영국 아파트단지에서 공동구입 공동사용, 파티용 집기, 세탁기 등)

⑤ 사용한 물품의 최종폐기는 철저히 분리, 배출한다. 폐기물은 재산을 위해 물질별 (종이, 철, 색깔별 유리, 섬유, 목재, 의류, 음식물찌꺼기 등)로 분리배출하므로 재사용 또는 재자원화하도록 한다. (정부의 적정정책 필요, 미국, 유럽의 중간처리장)

⑥ 재생제품을 우선 구매한다. 품질, 외양, 그리고 값이 일반 생산품에 비해 떨어지거나 비쌀 수도 있다. 정부의 정책지원과 녹색소비자들의 성원으로 재생제품 생산이 육성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정부가 우선구매)

⑦ 육식대신 채식으로 그리고 채식은 제철음식으로 식습관을 바꾼다. 육류식품과 제철음식이 아닌 식품의 생산은 환경을 파괴하고 자원을 낭비하기 때문이다.

⑧ 환경운동체 또는 시민단체에 속한다. 녹색삶을 위해서는 관련정보를 필요로 한다. 녹색구매지침이나 환경정보를 구매촉진에 치우쳐 있는 언론매체에 의존할 수 없다. 운동체에 가담하는 것은 정부와 기업과 사회에 녹색생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는데 힘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지구환경문제를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표어를 익히 알고 있다. 이 말은 지구환경문제는 지구시민 개개인이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작은 실천을 철저히 해냄으로써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II-5. 21세기 지구환경문제의 숙제

오늘의 지구환경이 더이상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은 누구나 분명히 하면서 실천사항의 합의도출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 점이 21세기가 풀어야 하는 지구환경문제의 핵심과제이다. 지구환경문제만큼 총론찬성, 각론반대가 현격한 분야도 드물 것이다. 명분상 반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자신 또는 자국이 그 대처에 적극대응하는 일은 별개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해결의 딜레마이다. '지구는 하나인데 세상은 하나가 아니다' 라는 것이 문제이다.

2002년 세계지구정상회의 (WSSD 2002)의 주제는 '빈곤문제'이다. UNCED의 사무총장인 모리스 스트롱이 '92 리우회의에서 21세기가 외면할 수 없는 과제로 되어 있는 빈곤타파를 위한 새로운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현세대에게 지구를 빌려준 미래세대에 대한 우리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하면서 남북간 또는 국가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관계개선을 이루어 내야 한다고 역설한바 있다.

20%의 세계인구가 80%의 지구자원을 소모하는 것을 고집하고 있는 현실에서 나머지 20%의 자원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80%의 인구는 생존을 위해 또는 선진국의 생활수준을 따라잡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릴 여유가 없는데서 남북간의, 국가간의 이해대립은 첨예해지

기 마련이다. 오늘의 국제정치, 경제구조 및 체제에 의해 날로 악화일로에 있는 남북간의 또는 국가간의 격차는 도처에서 대립현상으로 나타나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동서냉전이 남북전쟁으로 이전되어 핵전쟁이 아닌 지구환경의 보복으로 인류는 파멸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지구환경문제에서의 일보의 양보도 없는 해결의 교착상태는 리우회의 이후 10년간에도 변화가 없는 것으로 예측된다. Rio+5였던 '97년도 유엔환경특별총회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정치적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한 것을 비롯 Rio+10 제1차 준비회의에서 드러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여러면의 견해차이에서도 그 징후를 찾아 볼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과 접근방법의 차이, NGO와의 파트너쉽 문제, 지속가능발전의 동력인 재정 및 기술이전 증대를 위한 고위급의 정치적 의지 동원 에서 의견접근이 쉽지 않을 조짐이 보이고 있는 현상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세계는 지금 2002년 9월 2일에서 11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예정인 지구정상회의에 희망을 걸고 있다.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위한 획기적인 돌파구를 도출해 낼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촉발제의 역할을 NGO의 몫으로 간주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과는 달리 NGO는 국경, 국적, 계층의 장벽을 넘어서 연대, 주장, 그리고 행동이 가능하며 국익 등에 얽매임 없이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에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환경연대가 NGO의 일원임은 설명의 필요가 없다.

Ⅲ. 여성의 힘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도 한다. 시대가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100년의 역사는 갈등과 대결, 지배와 피지배, 경쟁과 소유 그리고 독점의 원리가 주도한 시대로서 인간의 자연착취, 강자의 약자억압, 생명경시 및 물질만능의 왜곡된 세상으로서 파멸로 향한 통로였다. 새천년 새세기에는 공생과 자율, 공유의 원리가 주도하는 평등, 평화, 화해의 세상을 꿈꾸게 한다. 인류의 지속가능생존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역사의 방향은 획기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새세기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환경의 세기와 여성의 세기는 그저 오는 것이 아니다. 여성이 준비하고 이끌어내야 한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총체적인 위기를 돌파하는 에너지는 지금의 사회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서 나오는 것이 인류역사의 법칙이라고 전제하면서 어떤이가 말하기를 지금까지 주변부에 있던 여성들이 대안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는데 동의한다.

내실을 따지기에는 이르지만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에는 <여성부>라고 하는 초미니의 막둥이 부처가 태어났다. 이어서 모성보호법이니, 여성고위공직임용 의무화제도니 여성의 사회활동을 권장하기 위한 육아시설 확대니 하는 정책들이 줄지어 발표되면서 여성의 시대가 목전에 다가온 듯한 느낌을 가지게 한다. 허상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으나 이러한 흐름을 알차게 이끌어 나가는 책임이 우리에게 부여된 셈이다.

III-1. 힘이란

‘힘이란 무엇인가?’ 여성이기에 강해진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코니 클레이저 (Connie Brown Glaser)와 바바라 스타인버그 스몰리(Barbara Steinberg Smalley)공저인 <당신에게 보다 큰 힘을!- More Power to You!, Women Books '92>에서 보면 힘이란 일을 성취해 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한다. 통상 능력이란 남자의 속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능력에 성차는 없다. 힘이란 타인을 관리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하게 하는 영향력을 의미하며 대립이 아닌 협력을 말하기도 한다. 힘이란 능력이다.

주제와 관련한 여성의 힘이란 오늘의 지구환경문제에 있어서 여성이 무엇인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 된다. 일반적으로 환경문제에 관한 한 여성성의 힘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여성인간군이 지니고 있는 모성성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성성이 오늘의 지구환경을 되살리게 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운동 이론가들 중에는 생활속의 실천운동으로 강조되고 있는 환경보전운동이 자칫 가정내 성역할을 고정시키는데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이들이 있다. 또한 사회주의 이론가 중에는 화폐로 보상되지 않고 있는 환경보전운동을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경제적 불균형과 여성의 빈곤을 부추기는 것으로 비판하는 견해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논쟁은 지구환경문제와 여성문제를 보는 시각과 심각성의 정도에 대한 인식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 계속 될 것으로 별도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대한다.

III-2. 세계여성환경기구(WEDO)의 힘

지구환경문제에 있어서 여성들에게 희망을 걸게 하는데에는 WEDO가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시각과 접근방법을 남성 또는 강자와 달리하고 있는데서 한 몫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국적 기업이 지구환경 훼손의 주역임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럼에도 ‘리우 선언’이나 ‘의제21’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막강한 경제력과 정치력으로 로비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WEDO가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최우선과제로서 **다국적기업문제를** 선정하고 집요하게 문제점을 파헤치고 부당성을 고발하고 있는 것은 여타 기구들, 그리고 단체들과 확실하게 차별화된 WEDO의 강점이다.

여성환경인들로 구성이 된 WEDO가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강자들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정면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생겨지는 것인가? WEDO는 국가제제를 받지 않는 자율적인 민간기구라는데서 힘의 발휘가 가능하다는 것은 다른 NGO와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덧붙여서 여성은 가부장제하에서의 약자의 억눌림의 경험에서 터득한 삶의 지혜와 용기(약자에 대한 연민, 생명의 담지자로서의 생명에 대한 강한 경외심 등)를 담지하고 있어서이다. 그 뿐만 아니라 여성은 생명을 중시하는 모성의 원리를 무시한 가부장적 개발이 초래한 자연환경파괴, 여성과 약자의 인권침해, 빈부격차, 그리고 불의 등에 대한 감성과 공분이 각별하기 때문이다. 여성들에게는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있는 힘이 있다. 단, 그 힘은 여성들이 연대하는 데서 생겨진다.

여성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개념화하는 작업에서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배와 남성의 여성에 대한 지배가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여성의 환경과 개발에 대한 인식과 행동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깨달음으로 남쪽(개도국)에서는 개발과정이 빈곤의 심화, 경제적 그리고 성적 불평등의 심화, 환경악화와 그로 인해 빈민층이 생계위협과 생명위협에 직면하게된 사실을 문제삼게 되었다. 또한 북쪽(선진국)에서는 인간중심주의와 남성중심주의의 대안으로 그리고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사이의 새로운 관계의 패러다임으로서 에코페미니즘을 탄생시켰다.

이 두 흐름의 주장들은 개발위기의식의 산물인 지속가능한 발전 논의를 위한 회의에서 중요한 의제로 자리잡아가기 시작하였으며 지속가능성의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는데 여성의 목소리가 보태지게 되었고 여기에서 WEDO의 활약은 돋보인다. WEDO의 힘은 실천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남다르다.

III-3. 여성과 엠파워먼트

오늘의 세계 여성운동의 화두는 여성의 엠파워먼트(empowerment)이다. 여성에게 '힘을 더한다는 엠파워먼트는 발전도상국가에 있는 여성들에 의해 시작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접근방법에서 여성들이 힘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남성이 힘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자립을 위한 내적인 힘을 더하기 위한 여성들의 능력을 의미한다.

엠파워먼트란 여성들의 요구를 얻어내기 위해 여성들이 연대하고 협력하여 얻어진 힘이다. 1985년 나이로비세계여성대회에 앞서 발족한 <새세기를 향한 여성과 함께 하는 발전대안-DAWN, Development Alternatives with Women for a New Era>이라는 새로운 미래사회의 비전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는 엠파워먼트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 국가에 있거나 국가간에 있어서 계급, 성 그리고 민족의 불평등이 없는 세계를 희망한다.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가 기본적인 권리가 되며 빈곤과 폭력이 없는 세상을 희망한다. 누구나가 자기의 가능성과 창조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여성의 발전과 연대를 중시하는 여성의 가치와 원리가 인간관계의 특성을 이루는 세계를 원한다. 그러한 세계는 예를 들어 육아는 남성과 여성 그리고 사회 전체가 분담하는 것으로 여성의 재생산 활동에 대한 역할의 정의를 변경하는 것이다.(중략) 공정, 개발, 평화의 상호관계를 강화하므로 빈곤층의 기본권리와 여성을 종속시키는 제도를 개혁하는 것 등을 여성들이 자신의 힘을 결집시킴으로써 성취해낸다.'

여성들이 희망하고 있는 세상은 여성들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정책의 혜택(제도적 장치)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로서 남아있는 한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같은 목적을 가진 여성집단의 지속적이며 일관성 있는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의 엠파워먼트는 여성들이 결집하는데서 이루어낼 수 있다.

여성들이 조직을 통해서 힘을 얻는다는 움직임은 <유엔여성 10년>기간동안 급속하게 확산되어 지구규모의 운동으로 발전했다. 그동안에 다양한 여성조직, 운동, 네트워크 또는 동맹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 및 행동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지배체제에 저항하고 있는 세계의 모든 집단들과 연계를 강화하면서 여성의 세력화를 힘쓰고 있다.

여성과 모든 양심세력들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성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WEDO가 베이징회의 이후 자체평가에서 말하고 있듯이 여성들의 정책결정기구에서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모범이 되어야 할 유엔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WEDO가 여성의제21을 유엔의제21에 수용할 것을 요구할 당시 '92지구정상회의에의 각 국 대표단의 50%를 여성으로 할 것과 유엔사무국의 실무자의 성균형(정책결정위당 4%에 불가)을 조정 할 것을 요구한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WEDO가 2000년 6월 8일 <2005년까지 50/50 확보 캠페인>을 출범시키고 현재 적극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여성의 정책결정기구에서의 참여가 모든 것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평등문제는 시민사회, 지역공동체, 가정에서의 새로운 힘의 관계를 창출하는 변혁의 도입점이며 우리가 갈구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을 이루어내는데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성평등이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견인해내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III-4. 우리나라 여성의 현주소

우리나라의 최근 상황은 외견상 고무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삼는 것은 그 고무적인 요인의 실체가 허상일 수 있다는데 있다. 유엔의 <인간개발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의 권한 척도 (Gender Empowerment Measure-GEM)는 70개국 중 63위이다. 99년은 102개국 중 78위, 98년에는 83위였다. 비율로 보면 우리의 여성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더 낮아졌다.

국민의 교육수준, 국민소득, 평균수명을 기준으로 측정한 <인간개발지수>가 174개국 중 31위인데 비해 여성의 권한척도가 70개국 중 63위인 것에서 우리나라의 여성차별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큰 폭으로 진전되었다고 하는데 역으로 세계의 순위가 해를 거듭할수록 뒤쳐지고 있는 것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눈부신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4000여개의 여성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중앙단체들의 대정부 또는 대사회 고발 및 제의활동은 다른 시민운동체와 다를바 없지만 각 지역의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생활과 직결된 이슈를 가지고 활동하는 풀뿌리 운동에 있어서는 여성환경운동이 여타 시민운동체와 그 성격을 크게 달리하고 있어서 차별화된다. 생

활실천 운동방법이 사회와 언론의 시선을 끌기에는 센세이션널하지 못하다는 것은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없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와 삶의 질 향상은 기대할 수 없다는데서 지역사회 활동은 권장되어야 한다. 여성운동의 힘은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단체들도 회원의 참여문제와 운영을 위한 재정문제, 운동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을 겪기는 다른 시민운동체들과 마찬가지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 정도의 심각성이 더하다는 것이 다르다면 다르다. 시민운동의 역사가 긴 다른나라와는 달리 우리사회에는 시민운동에의 참여문제와 이들의 활동의 주요 재원확보방안인 기부문화가 아직 싹트지 못하고 있는 점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사회에 시민운동을 지원하기위한 민간재단들이 하나 둘 출범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여성에게 부여된 권리의 수준이 그 나라의 실질적인 민주화와 번영과 발전의 척도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그 수준은 아직 멀었다. 어떤 이의 지적대로 우리나라가 이미 오래전에 OECD가입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고 국내총생산으로도 세계 13위 수준 (99년도)의 한국이 인간개발지수와 여성의 권한 척도에서 그렇게 뒤떨어진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는데 공감한다. 식자들은 창의성과 유연성이 강조되는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맞아 우리 의식속의 편견과 차별의식을 걷어내고 대신 남녀평등을 이루어내야 한다고 한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정보화시대의 발전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III-5. 여성환경연대

오늘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총체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서 희망이 있다. 외부적인 분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구석구석에서 여성의 필요에 의한 또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크고 작은 다양한 과제를 중심으로 여성들이 실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환경연대 회원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에게서 힘을 느끼는 것은 생기를 느낄수 없는 딱 막힌 상황에서 여성환경인들은 '이대로는 안된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어 놓고야 말겠다'는 단호한 목표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우리사회에 뿌리깊은 가부장제 문화에 저항하면서 주민자치운동, 생협운동, 녹색지역만들기운동, 환경친화적인 생활운동 등을 주체적으로 펴면서 나름대로 세상바꾸기에 확실히 수준 높게 기여하고 있다는 자신감에 차있는데서 다른 사람들이 힘을 받게 한다. 이들은 여성환경연대라는 조직을 통해서 홀로가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여럿이 함께 한다는데에서 보다 큰 힘을 도출해 내고 있다. 여성환경인들의 연대가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시기에 <21세기 녹색평등세상을 위한 여성환경인의 다짐-2000년도 여성환경활동가 전국연수회에서 발표>을 밝히고 국내외 연대강화에 힘쓰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IV. 맺는말

지금까지 인간이 추구해온 삶의 내용은 물량적인 것이었다. 21세기의 삶의 질은 쾌적한

환경과 공동체사회를 주축으로 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동서냉전의 종식으로 21세기를 향해 역사의 전환점에 서있으며 새로운 인류역사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구환경보전을 들고 있다.

오늘의 세계의 사회운영체제는 공적영역으로서의 정부, 민간영역으로서의 기업 그리고 제3영역으로서의 시민사회의 3개 영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의 파트너쉽으로 이루어지는 가버넌스(협치)를 잘 이루어낼 때 지속가능한 사회는 만들어진다.

우리는 현재 백척간두에 선 경제, 정치, 사회, 교육, 환경문제 등으로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오늘의 위기상황 극복은 물론 지속가능한 사회건설을 정부와 경제계에게만 내맡길 수 없는 처지에 있다고들 하고 있다. 오늘처럼 시민사회의 참여의 필요성이 높은 때는 없었다. 가장 중요한 행위주체이며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확실한 대안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는 시민사회의 일원인 여성들의 활약이 주목된다.

여성은 지구시민의 일원으로서 환경파괴에 대한 가해자이고, 피해자이며 감시자이고 관리자이다. 21세기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여성의 힘은 말로만이 아닌 실천으로 표출되어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에 기여해야 한다.